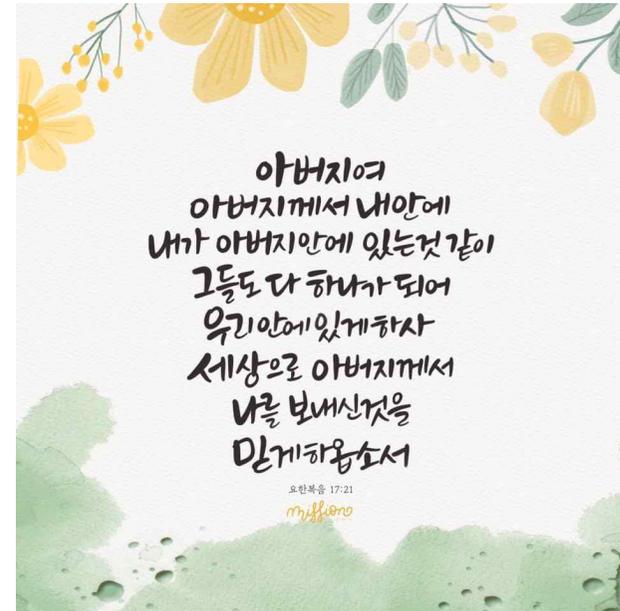


1. 주일예배를 당분간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예배 지침서를 참고해주세요.
2. “말씀과 함께 하는 하루”와 “합심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3.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4. 총기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지난 주 통계			
주일헌금	CD \$20	1,2,25	
감사헌금	CD \$15	1,2	
십일조	CD \$250	1,2	
장년 출석	가정예배	어린이 출석	가정예배

가정예배 지침서

1. 예배 시간을 미리 공지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2. 의복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시청은 큰 기기 하나를 준비해서 가급적 온 가족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각 개인이 다른 기기를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온 가족 구성원이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돌아가며 맡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여는 기도와 예배 인도는 아버지, 대표기도는 어머니, 성경봉독은 자녀들이 맡으면 됩니다.
4. 찬양은 동영상을 참고하여 모두가 큰 소리로 함께 부릅니다.
5. 설교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동영상 시청 중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6. 합심기도는 5가지의 기도제목 외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마침기도는 연장자가 하겠습니다.
7.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8. 헌금은 E-transfer로 합니다. (mahanaim0904@gmail.com) 패스워드는 (JESUS)로 해주세요.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2:00PM 지하 청소년교회 1:30PM 지하

담당목사: 김승용 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부활 후 둘째 주일 가정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여는 기도 위로의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은이

찬양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주는 완전합니다 다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말은이

대표기도

요한복음 17:20-26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이다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봉독 말은이

설 교 관계의 회복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동영상 참조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밀알 다함께
 합심기도 노바스코샤 총기사고 및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노바스코샤는 캐나다에서 크거나 규모면에서 작은 주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순박하고 인심 좋은 시골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지난 주일에 발생한 총기사고처럼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려 22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끔찍한 것은 아직 정확한 동기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7시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슬픔을 삼킨 채 한 마디 한 마디 내뱉는 이들의 결연한 목소리에는 이 사고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길 원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이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격리된 상태로 2달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단절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오로지 세상을 향해 어진 끝은 온라인 관계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와 교회마저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한 관계는 쉽고 빠르고 지역, 성별, 인종, 종교, 재력 등의 제약 없이 평등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우리 삶에 깊숙하게 침투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치 오프라인의 관계를 모두 대체할 수 있을 듯이 보였던 온라인 관계는 결코 오프라인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관계를 이어가야 하며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2가지 관계에 그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우리 죄의 댓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성도들 간에는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합니다.

성육신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부름 받았습니 다. 하나님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 용서와 평화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관계는 결코 흉내내거나 속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관계, 혹은 형식적인 관계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깨어 지기 마련이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았던 거짓된 관계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 갈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광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광야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좌표와 의미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서 이제 우리 각 가정들이 세상 속에 뿌려진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작은 교회가 되어 이 땅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교만을 꺾으시고 생명보다 소중한 여기던 경계를 내려놓게 하였고 매스미디어의 감옥에 갇혀버린 현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성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바로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그 관계를 세상 속에 적용시킬 때 향긋한 포도향이 우리의 공동체를 채우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열매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